

현민 여러분께

그제, 일본 정부는 모든 지자체에 대하여 긴급사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긴급사태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시마네현은 5월 14일 긴급사태 선언의 구역이 된 이후, 감염방지와 일상생활, 경제활동을 어디까지 양립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현민 여러분께 당부 내용을 조금씩 완화했습니다만, 그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시마네현의 향후 완화에 대하여 오늘 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현시점에서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으며, 전국에서 해제가 선언되었다고 해서 감염 위험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에 시마네현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겠습니다.

1. 현민 여러분께 당부

우선, 「철저한 기본적인 감염증 대책」입니다.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 ① 「3 밀(密)」 회피
- ②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 확보」
- ③ 「마스크 착용」
- ④ 「손 씻기 등의 손 위생」

등, 기본적인 감염 대책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외출 자숙」입니다.

- ① 5 월 말까지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불요불급한 귀성이나 여행 등, 도도부현을 넘는 이동은 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② 6 월 1 일부터는, 주고쿠 지방 5 개 현 상호 간의 이동에 대하여, 자숙요청을 해제합니다.
- ③ 6 월 15 일부터는, 각 지역의 감염상황을 바탕으로, 홋카이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및 가나가와현 (5 월 25 일에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된 지역)이외의 이동에 대하여 자숙요청 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 ④ 6 월 19 일부터는, 모든 지역으로 이동에 대하여 자숙요청 전면 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 ⑤ 또한, 관광 진흥 관점에서 사람의 이동에 대해서는, 우선 시마네 현내의 관광 진흥부터 대처하여, 이 상황에 근거하여 현외에서 모객을 실시하겠습니다.
- ⑥ 지금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접객을 동반하는 음식점, 노래방, 라이브하우스, 헬스장 등에 대해서는, 환기나 소독, 입장 제한을 시작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확보하는 조치 등, 점포 측에서 충분한 감염 방지책을 취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 기회는 최대한 줄여 주십시오.

이러한 곳에 외출하실 때에는, 앞에 말씀드린 점포 측의 감염 방지 대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자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 확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 등이 있는 경우 자숙」 등의 기본적인 감염 대책을 지켜 주십시오.

2. 시마네현 소유 시설 등의 대응

6 월 1 일 이후, 원칙적으로 전관 재개하기로 하고, 새롭게 8 개 시설을 재개, 이미 재개한 26 개 시설 중, 9 개 시설에 대하여 이용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3. 현립 고등학교와 특별 지원 학교의 대응

모든 현립 학교는 5 월 25 일부터 이미 재개하여 마쓰에시 이외의 현립 학교는 일제 등교를 통한 통상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주 6 월 1 일부터는, 현재 분산 등교하고 있는 마쓰에 시내의 현립 학교도 일제 등교 등, 평상시의 교육 활동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동시에, 현민 여러분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이 감염증 발생 전 상황과 조금이라도 근접해지도록 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 대책 및 의료 확보, 현내 기업의 사업 지속에 계속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0 년 5 월 27 일

시마네현 지사 마루야마 다쓰야